내 삶의 힘, 100세 시대 은퇴파트너

ÖNH농협은행

똑소리 나는 약국 이용법. 약, 제대로 알고 먹어요 중노년의 인상을 결정하는 눈매교정술

고금리·불확실성의 시대 안정적 은퇴를 위한 전략

AGE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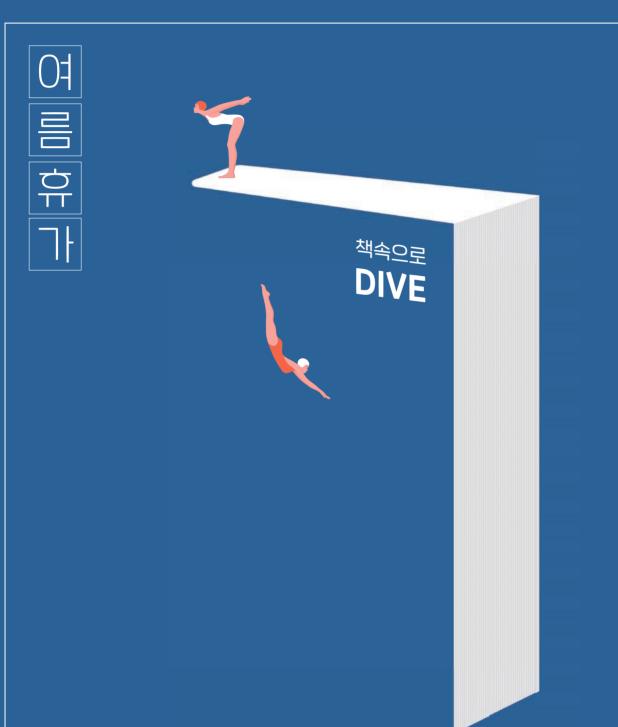
RETIREMENT

FINANCIAL

한국 상륙한 애플페이… 국내 결제 시장 지각변동 일어날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HAPPY

요리 _ 달콤한 과즙이 뚝뚝 복숭아 인터뷰 _ 배우 고창석







책은 내가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책은 나를 다른 세상으로 안내해준다.

-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중에서

작가_허필선 / 출판 _프로방스

CONTENTS

A11100플랜 2023년 여름 통권 42호

발행일 2023년 7월 3일 발행처 NH농협은행 발행인 은행장 이석용 편집책임 이민경 편집위원 이정은, 김훈식

제작 농민신문사 신고일 2012년 10월 19일 등록번호 서울중 바 00139

아트웍 지오커뮤니케이션

New Happiness 은퇴설계 행복하게

GEN

06

고금리·불확실성의 시대 안정적 은퇴를 위한 전략

08

경제시황

사자성어와 함께하는 2023년 하반기 경제

10

세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2

부동산

노후대비를 위한 상업용 부동산투자, 실질 수익률로 따지기



14

은퇴전략

모두가 행복한 은퇴설계

16

시니어 취업

시니어 취업의 특징 및 특성, 시니어 취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18

아름다운 얼굴

처진 눈, 졸린 눈, 어떻게 교정할까? - 중노년의 인상을 결정하는 눈매교정술

20

건강

똑소리 나는 약국 이용법 - 약, 제대로 알고 먹어요

RETIREMENT 은퇴이야기

22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1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26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2

한국 상륙한 애플페이… 국내 결제 시장 지각변동 일어날까

30

All 100 NEWS

32

법률정보

재산 분할, 미리미리 준비해야 분란 막을 수 있어













34

여가&조이

역사 찾아 떠나는 양주의 삶과 예술 - 과거의 숨결 따라 현재를 보다

38

인터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버틸 수 있는 의지 - 배우 고창석

42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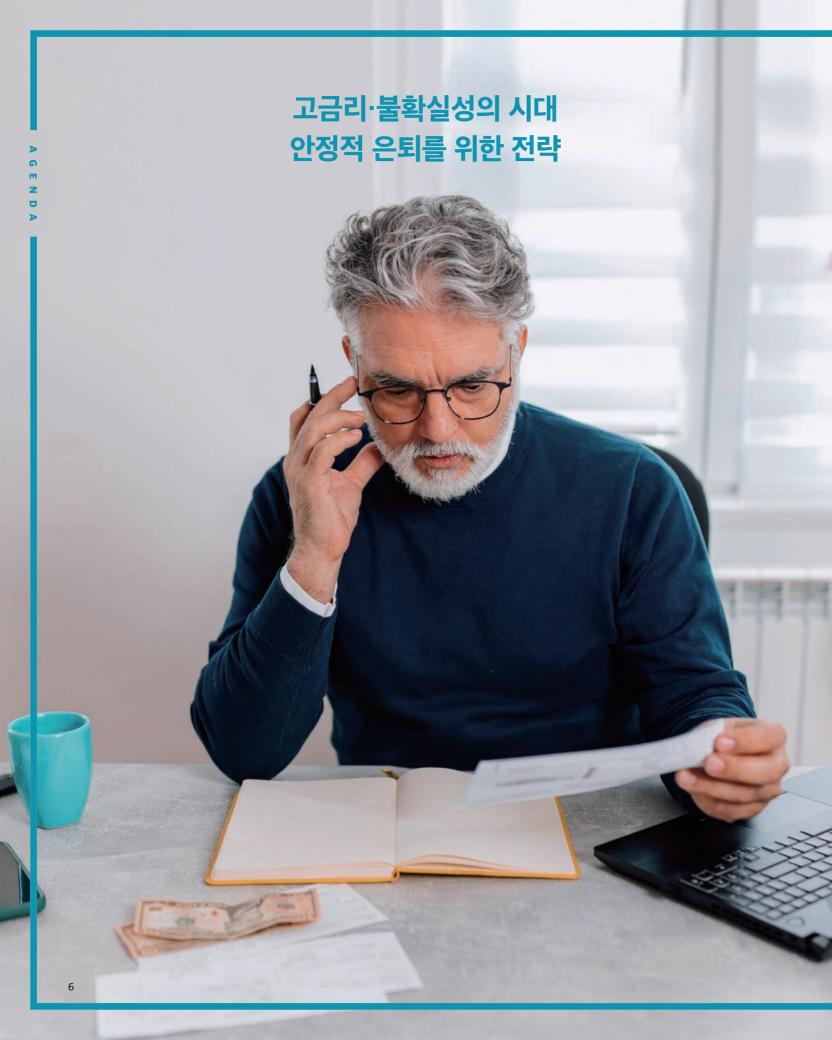
달콤한 과즙이 뚝뚝 복숭아

44

영화

음악과 소음

- 강렬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영화〈타르〉





1%대를 오가는 '저금리 시대'를 벗어나면서 은퇴에서도 전략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부동산을 통한 투자가 가장 손쉬운 투자처가 됐지만 기준금리가 3%대로 오르면서 이 같은 투자는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은퇴자들의 '똑똑한 투자'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tf100#≅ 2023 Summer 2023 Summer

사자성어와 함께하는 2023년 하반기 경제

글 김경원 WM전문위원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미국의 경제 상황은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올해 하반기 경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은퇴 후 전략을 세울 땐 전 세계 경제 동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에, 반드시 기민한
확인을 해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낭패불감(狼狽不堪)

어떤 상황에 닥쳐 어쩔 수 없이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아주 난감한 상황을 의미하는 말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정작 물가는 많이 안 떨어지고 경기침체 가능성만 커지는 형국,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에 힘을 쏟아주기에는 물가 하락 속도가 너무 더딘 상황. 현재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낭패불감인 상황이다.

FED Tightening 'Something Always break' 2018년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제롬 파월이 한 말이다. 파월은 2018년 11월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경기과열을 막기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3월부터 14개월 동안 빅스텝을 밟아가면서 계속 금리를 올려 현재 5%~5.25% 금리수준은 2007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경제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현재 지표상으로는 경기연착륙과 경착륙 두가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보조금으로 인한 초과저축분, 견조한 고용으로 인한 낮은실업률, 최근 반등에 성공한 소매판매지수는 경기연착륙(경기둔화)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경기 대표적인 지수인 ISM PMI(구매

자관리지수: 공급관리자와 제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50 이하이면 경기둔화 의미)가 46.9를 나타내고 있어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 조사에서 포함하고 있는 세부항목 중 신규수주의 감소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기경착륙(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금리 인상 후 경기연착륙이 있었던 사례가 별로 없어 확률적으로는 경착륙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야 견조한 노동과 양호한 소비활동이경기를 받쳐주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된다. 이런 가능성은 최근 발표된미 연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1등 리스크로 지속적인 고금리·고물가를 꼽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지지부진(遲遲不進)

매우 더디어서 일 따위가 목적한 방향대로 잘 진행되지 아니함.

요즘 물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sticky'이다 '끈적끈적하다'라는 말로 원래 접착력이 있는 메모장을 이야 기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물가의 종류는 2가지가 있다. 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한 소비자물가(CPI)와 에너지와 식품을 뺀 핵심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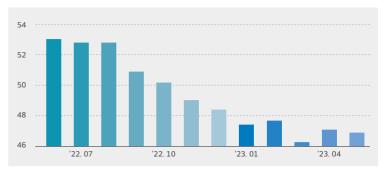
(CORE CPI)이다. 소비자물가(CPI)는 작년 6월 8.93에서 올해 5월 4.0%로 처음으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핵심소비자물가의 하락세가 작년 6월 5.88에서 올해 5월 5.3%로 둔화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다. 특히미국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중요하게 보는 것이 핵심소비자물가역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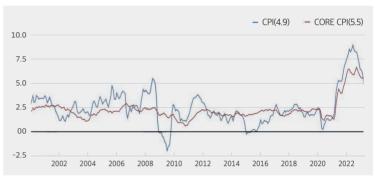
최근 3월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한 이후 지역은행 문제가 심각하다. 특 히 금융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한곳 의 문제가 여러 곳에 영향을 끼칠 가 능성이 크다. 이런 위험은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로 이어져 미국 고용의 5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여 력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대출과 도 연계되어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최근 연준도 향후 금리 향 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지역은행 문제라고 언급하였 다. 또 다른 불행은 5월 29일 백악관 과 공화당 지도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부채한도 관련 이슈들이다. 합의 내용은 부채한도 적용을 2025 년으로 유예하는 대신에 복지축소. 학자금대출상환 유예 폐지 등 정부 지출 일부를 감소하는 것이다. 물론 하원과 상원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

표1 구매자 관리지수(ISM PMI)



출처: Trading economics

표2 핵심소비자물가



출처 : 세인트루이스 연준 제공 경제데이터(FRED)

어 부결될 수도, 수정될 수도, 기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디폴트 가능성이 낮아진 점은 자산시장에 매우 긍정적이다. 문제는 합의 완료이후 대량 국채 발행으로 인한 채권금리 상승, 정부 재정지출 축소가 GDP와 고용,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금융시장은 불안하기만 하다.

안정되지 않은 시장 불안감 주시해야

최근의 자산시장 움직임은 이런 변동성과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을까? 연초 이후(06.16.기준) S&P500은 15.3% 올랐고 나스닥은 31.7%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복기해보면 2007년 7월에 베어스텐스내의 헤지펀드가 90% 손실이 발생한 이후 약 1년 동안 금융기관들이 하나둘 문제를 일으키는 동안에도 주가는 사상최고 치를 경신했었다. 위에서 언급한 낭패불감, 지지부진, 설상가상의 순간이 찻잔 속 태풍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올 한해 나의 포트폴리오의 점검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ti100¥e 2023 Summer 9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글 이창언 세무전문위원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할 때는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녀 입장에서는 물려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해 주고 있다.

자격요건 해당 시 농업인 증여세 최대 100% 감면

홍길동은 과수원을 운영하는 65세의 농업인이다. 홍 씨는 최근 참석한 모임에서 지인으로부터 "내가 알아보니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라서 경작지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국세청에서 재산의 절반이나 세금으로 가져간다던데…"라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지게되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홍 씨의 과수원은 기준시가로 계산해도 40억원(면적:10,000㎡, 공시가격:400,000/㎡)으로 평가되어 이대로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면 지인이 말한 것처럼

재산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뺏길 것 같았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이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가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른 감면 혜택 적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자경농민, 영농자녀 등에 적합한지 크게 세 개의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농지 등이란 아래 표(파란색) 의 요건(⑦, ⓒ, ⓒ)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아래 표의 지목과 면적에 해당 할 것

표 농지 등의 지목과 면적 요건

구분	요건
1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산림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단, 조림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990,000㎡)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다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등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의 것
어업용 토지등	40,000㎡ 이내의 것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0,000㎡ 이내의 것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① 해당 농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 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일 것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 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일 것

둘째,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셋째, '영농자녀 등'이란 농지 등의 중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며, 중여세 신고기한(농지 중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지 등 중여에 대한 중여세를 100% 감 면 받을 수 있다.

단 증여세를 무제한 감면해주는 것이 아닌 5년간 감면세액의 합계액 1억원을 한도로 적용 한다. 따라서 감면세액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것을 추천한다.



감면 후 주의해야 할 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한편 중여세 감면 혜택을 받은 이후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영 농자녀 등이 중여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여받은 날 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 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중여 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최소한 5년은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직계비속에게 중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증여에 대한 감면세액 외에도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째,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영농자녀 등이 증여세를 감면 받은 농지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감면 받으면서 상속세도 절세하는 일거양득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둘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 등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경농민이 농지 외다른 재산(현금 등)을 영농자녀 등에 증여하더라도 누진과세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 증여에 관심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절세혜택을 누릴 것을 추천한다.☎

∆ti100¥a 2023 Summer 11

노후대비를 위한 상업용 부동산투자, 실질 수익률로 따지기

글 윤수민 부동산전문위원

'오피스텔'과 '상가'는 노후 대비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수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노후 대비용으로 '상가' '오피스텔' 투자 많지만

부동산 자문업무 특성상 은퇴를 앞둔 고객의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상담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런 은퇴 예정 고객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투자의 위험성보다 실효성에 가깝다.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얻게 될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본차익(시세차익)에서 발생하는 자본수익, 두 번째는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소득수익이다. 자본수익과 소득수익의 합계는 해당 투자에서 결정되는 최종 수익으로 투자수익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토지나 꼬마빌딩과 같이 부동산의 가치에서 토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자본수익' 중심의 상품,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보유 토지 면적이 작고 건물분에서 나오는 수익 비중이 클수록 '소득수익' 중심의 상품으로 분류한다. 참고로 소득수익 중심 부동산은 하나의 토지를 다수의 가구가 분할 소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때 시세 차익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렇게 '상가'와 '오피스텔' 투자에서 자본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가정하고, 소득수익만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질 투자수익률 을 살펴보자.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상가가 내세우는 연 4~5% 수 준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매월 100 만원의 월세 수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 3억원의 상 가투자를 가정한다. 이 경우 투자에 서 발생하는 예상 수익률은 4%(100 만원*12개월/30,000만원)로 계산할 수 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 해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 이 9.5%('23.1분기 전국 기준 상가 공실률)있다고 가정한다면 공실 위 험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은 3.62%로 줄어든다.

하지만 상가투자의 실질 수익률은 최소 두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비용 이다.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 람은 '임대사업자'로 분류되어 반드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실



제로 월 1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 생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상 가에서만 매월 약 29만원 가량의 건 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하여 상가 투자의 실질 수익률은 한 차례 하락하게 된다. 두 번째는 소득세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및 그 외 소 득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 득 규모에 따라 6~45%까지 누진세 율로 책정되는데, 임대소득 외 다 른 소득이 높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 이 크지 않다. 하지만 임대소득 외 이자, 배당 등 다른 소득이 높은 경 우에는 소득세율이 올라가고, 올라 가는 세율에 따라 상가 투자의 실질 수익률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요인 이외에도 상업용 부동산의 높은 취득세율(4.6%)과 공실 발생에 따른 관리비 납부 등 실질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실질적인 수익률 꼼꼼히 계산해봐야

물론 이 실제 수익률이 자본차익이나 임대료 상승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그렇지만 투자에 따른 의사결 정은 보수적일 필요가 있고, 소중한 은퇴자금의 운용은 더 세밀하 게 관리되어야 한다.☎

표 상가 및 오피스텔 투자 실질 소득수익률 변화(투자금 3억원, 월세 100만원 가정)



∆ti100¥e 2023 Summer 13

모두가 행복한 은퇴설계

글 김훈식 은퇴설계전문위원

은퇴는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한 존재가 아닌만큼, 은퇴를 설계할 때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무엇을 누구와 함께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 돼가고 있다. 이 때 주변인과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야 행복한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언제부턴가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가 좀 더 일상생활에 근접해져 있고, 은퇴를 불행이라고 보기보다는 행복이라는 시각으로 변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은퇴설계도 과거에는 재무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했다면, 지금은 비재무적인 부분의 설계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행복한 은 퇴설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한 은퇴 목표를 세워라. 대부분의 은퇴 상담은 생활비에만 치우쳐 있어 은퇴 후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은퇴 3년 전부터 체크리스트를 작성, 본인만의 버킷노트를 완성한다면 보다 행복한 은퇴생활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버킷노트는 목적이 분명하고 개량적인 방법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중요도, 버킷명, 완료 예정일, 비용, 멤버 등을 구체적으로 쓴다. 가령 골프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겨울에 태국이나, 베트남 같이 따뜻한 나라에서 부부동반 한 달 살기 등을 정한다. 남이 해주는 밥과 좋아하는 골프를 맘껏 즐겨도 생활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 굳이 추운 한국에서 겨울살이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다.

혹 '나는 특별한 취미도 재주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집 근처에 있는 둘레길 산책에서부터 제주도 올레길 27코스 완주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함께 행동하라. 아무리 잘 만든 버킷노트가 있다고 한들



행동하지 않으면 도루묵. 아일랜드 노벨문학상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 의 묘비명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 럴 줄 알았다'는 글귀처럼 망설이지 않고 과감한 실행력을 가진 당신은 행복한 은퇴설계에 쑥 다가가 있을 것이다.

은퇴 후 생활에서 핵심 요소는 은퇴 파트너와의 소통과 관계인데 갑자 기 늘어난 둘만의 시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말다툼과 불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커플과 황혼 이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은퇴설계의 기본은 혼자가 아닌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은퇴 3년 전부터 빠르게 사전 버킷 노트를 작성, 서로의 취미와 스케쥴 등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서는 홀로 된 이후의 생활도 계획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은퇴는 설계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

셋째. 점검하라. 아무리 잘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바뀐다면 수정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버킷노트에 해외여행 가

기를 일순위로 올려놓았던 은퇴자라면, 현재의 상황이 해외여행에 적합한지, 여행지가 관광하기 괜찮은 시기인지 점검해 보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정리하면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선 건강한 신체와 은퇴 파트너가 필요하고, 사전에 단기, 중기, 장기의 은퇴 목표를 설정, 매년 반복되는 목표가 있는지 체크하고 둘만의 버킷노트를 하나씩 실천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첨부해 간다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은퇴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표1 은퇴준비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항목	예	아니오
비재무적 요인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가?		
	은퇴파트너와 함께하는 취미가 있는가?		
	분명한 은퇴 목표가 있는가?(버킷노트)		
	주위에 병원이나 도움을 줄 지인이 있는가?		
재무적 요인	연금으로 은퇴 생활비 100%를 충당 할 수 있는가?		
	부채 및 자녀지원 등에 자금이 필요한가?		
	은퇴전문가로부터 은퇴설계를 받았는가?		
	세금, 상속·증여 등 도움을 받을 전문가가 있는가?		

참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표2 버킷노트 작성 예시

버킷명	중요도	완료 예정일	비용(만원)	멤버 (단독, 배우자)
해외여행 - 몽골,발리 등	***	2024. 6월	400	배우자
재즈 배우기	\$\$	2024. 12월	50	단독
집 근처 둘레길 걷기	***	2023. 12월	_	 단독
 1년 12번 골프치기	☆	2023. 12월	300	단독
 탁구배우기	☆	2023. 12월	노인복지센터	단독
당구배우기	☆	2023. 12월	노인복지센터	단독

Ati100# 2023 Summer 15



시니어 취업의 특징 및 특성, 시니어 취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는 시니어 취업이 조금 더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은퇴자들이 취업할 기회의 폭은 좁다. 시니어 취업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감 및 자존감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가의 생산성 제고와 사회보장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사회 전체가 시니어 취업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할 때다.

글 박주임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국장

늘어나는 시니어 취업··· 65세 이상 고용률 34.9%

요즘 TV 광고에 시니어 사원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022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22년 9월 발표)에 의하면, 2021년 65 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34.9%로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60.5%)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15년 이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60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하여 노인으로 인식하고, 일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으로 건강하고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독립으 로 자립생활을 영위하며, 젊은이 못지않은 활동 성과 능력을 갖추고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2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79세 고령자 중 54.7%가 취업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취업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비 보탬(53.3%), 일하는 즐거움(37.3%) 순으로 응답하였다.

시니어 취업은 단순한 취업 넘어선 '자아실현'의 문제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며, 지식, 기술, 삶의 수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에 대한 존중 감,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에서도 시니어의 근로소득 보장이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 빈곤, 무위고 등 노인 문제를 예방하여 국가재정 부담 을 감소시킬 수 있어 고령자와 노인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과 일자 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부족한 노동력을 시니어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니어의 건강 상태, 전직 경험,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서 일자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시니어 취업은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로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니어 취업은 개인 차원에서는 생활비 및 용돈의 소득원 확보, 자기유용감과 정체감의 부여를 제공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노인을 의존적인 소비계층으로만 간주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의 생산성 제고와 사회보장비용 절감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

표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 현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정된 시니어 취업처는 '아쉬움'

아직은 시니어 구직자들은 자기 경력과 능력, 특기에 맞는 직종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을 보면, 단순 노무종사자(36.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2%), 서비스·판매 종사자(16.8%),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4.1%) 순으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고, 관리자,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낮다.

이는 단순노무직은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일 자리이기도 하지만, 변화된 고용시장에 대한 정보 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년제도로 인해 시니어가 지금까 지 일하던 직업군으로 복귀하기 어렵다.

경력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정년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취업 정보와 취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인식에 대응하고 일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지방자치정부에서는 무료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시니어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취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 취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누렸던 지위와권위를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긍정적자신감과 새로운 일을 배우고, 정보를 찾는 적극적 마음가집이다.

Ati100èe 2023 Summer 17

처진 눈. 졸린 눈. 어떻게 교정할까?

중노년의 인상을 결정하는 눈매교정술

우리가 타인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곳이 눈이다. 눈은 사람의 인상과 느낌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상대방의 눈에 관한 이미지를 통한다.

글 안태주 수아이 성형외과 원장

누군가의 인상을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눈매가 시 원해보인다. 눈이 작아 인상이 답답해 보인다. 눈 이 동그래서 착해보인다, 눈이 길고 가늘어 차가 워보인다' 등 눈에 관한 표현들을 한다. 이렇듯 '마음의 거울'이라 불리는 눈은 외모에서 특히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눈은 얼굴의 다른 부위와 비교해 노화가 빨리 찾아온 다. 다른 곳에 비해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아 주름이 잘 생길 뿐 아니라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 았기 때문에 탄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이다.

'눈꺼풀이 무겁다' 안검하수-무조건 쌍거풀을 크 게 만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

중노년기에 접어들어 노화가 시작되면 많은 사 람들이 '눈꺼풀을 들어올리기 힘들다'고 한다. 이 것이 안검하수이다. 눈을 뜨는 근육에 문제가 생 겨 나타나는 현상인데 의학적으로는 상안검연 (위쪽 눈꺼풀이 안구와 닿는 곳)이 정상적인 위치 보다 밑으로 쳐져서 내려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눈꺼풀을 올리고 내리는 근육의 기능이 약해 져 눈꺼풀이 아래로 쳐져 항상 반쯤 감긴 눈이나 졸려 보이는 눈이 되는 것이다. 안검하수가 심해 지면 시야가 가려져 불편하다. 커튼이 내려진 창



문으로 밖을 보려면 커튼을 올려야 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눈을 치켜 뜨게 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시야가 가려져 흘겨보게 돼 인상이 고약하고 심술궂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이 '쌍꺼풀 수술'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쌍꺼풀 수술은 근본적으로 눈이 커지는 수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담을 할 때, 쌍꺼풀을 크게 할수록 눈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서양인들의 큰 눈이 쌍꺼풀이 크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 쌍꺼풀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힘을 좋게 하는 눈매 교정술을 해야 한다. 수술 방법은 눈 뜨는 것과 관련된 근육을 조절하는 것이다. 절개 없이 당기는 것만으로 시행하는 비절개눈매교정술, 절개하여 눈꺼풀올림근을 당기기, 묶어주기 등이 있다.

'눈 뜨는 힘'을 보완하는 눈매교정술

눈매교정술로는 여러 가지를 개선할 수 있다. 첫째, 이마주름이 개 선된다.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눈 뜨는 힘이 약한 사람 들이 있는데, 눈을 뜰 때 눈썹을 같이 들어올리게 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이마에 주름이 많이 잡힌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눈을 뜨는 힘을 보완해주면 눈썹을 올리는 습관이 줄어 이마의 주름이 개선된 다. 둘째, 눈 위 꺼짐이 좋아진다. 눈 뜨는 힘이 약하면 눈꺼풀올림 근의 조직이 약해 상대적으로 늘어지고 눈지방 또한 당겨지게 되므 로 안쪽으로 꺼진 눈이 되는데 눈매교정술로 호전될 수 있다. 그러 나 눈꺼풀이 두터운 사람은 눈매교정술을 할 경우 눈이 더 두터워 보일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방제거나 이마거상술 등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 셋째, 하백안이 개선된다. 눈동자를 중심으로 좌우 두 개 방향의 흰자위만 보여야 하는데(이백안, 二伯眼) 세 방향의 흰자위 가 보이는 것은 삼백안(三白眼)이라고 한다. 삼백안은 위쪽의 흰자 위가 보이는 상백안(上白眼)과 아래쪽 흰자위가 보이는 하백안(下 白眼)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백안이 눈매교정술로 개선되는 경우 가 종종 있다.



눈 뜨는 힘이 약하면(오른쪽 눈) 쌍커풀이 상대적으로 커보이고, 눈 위가 들어가 보인다.



하백안의 모식도

심술궂어 보이는 볼록한 눈 밑-지방 재배치가 효과적

인상을 좌우하는 눈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은 나이 들수록 볼록해지는 눈 밑이다. 눈 밑 지방이 불 룩하게 튀어나오고 눈 밑 고랑과 주름이 두드러 져 인상이 어둡고 무거워 보일 때 시행하는 수술 이 하안검 수술이다.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고 지 방을 재배치하여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지방 재배치는 피부 겉 면을 절개하지 않고 눈 안쪽 결막을 레이저 등으 로 절개해 진행할 수 있지만 노화가 많이 진행되 어 눈 밑의 피부 탄력이 저하돼 있고 주름이 심하 다면 피부 겉면의 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눈 밑의 지방이 부족한 경우에 도 교정은 필요하다. 인상이 피곤하고 다크서클 이 심해 보이는 경우 눈 밑의 움푹한 부분에 지방 을 보충해주기도 한다. 이때 다른 부위에서 지방 을 채취해 이식하기도 하는데 피부층과 안륜근 사이에 지방을 정교하게 주입함으로써 개선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가장 중요

필자는 상담 시 '눈을 크게'하기 보다는 '눈을 또렷하게' 보이도록 권하는 편이다. 물론 눈의 상태를 확인해 각각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 수술 후의 불만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중노년의 눈 수술은 개개인마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다양하고 개인의 눈 구조와 피부 상태, 기저 질환과 복용하는 약 등에 따라 예후가 다르므로, 경험이 많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적절한 수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ti100€ 2023 Summer 19

독소리 나는 약국 이용법 약, 제대로 알고 먹어요



비슷비슷해 보이는 약, 잘 구별해 적정하게 먹어야 약이 된다. 복잡한 약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약사 친구를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 약 전문 크리에이터로 <나도 내 몸을 잘 몰라서> <피임약 처음 먹어요> 등의 책을 펴낸 약사가 '약이 되는' 약 이야기를 전한다.

글 천제하·최주애(약사, 유튜브 '약먹을시간', @time4pharm)

약국에서 약을 사려면 매번 약사와 상의해야 하나요?

약국에 방문하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상의하시라 고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 죠. 약국에 사람이 많아 충분히 상담할 수 없는 때도 있 고, 손님이 바빠서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 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단골약국'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단골약국 약사가 손님의 병력과 약력을 기억하면 더구체적으로 조언할 수 있고, 혹시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문제를 파악하기에 훨씬 수월하거든요.

단골약국을 만들려면 약국 방문 시 세 가지를 말해주세요. 첫 번째는 자신의 질환과 증상, 두 번째는 지금 복용 중인 약, 세 번째는 본인의 약력입니다. 질환과 증상을 자세하게 알수록 그 증상에 맞는 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지금 복용 중인 약을 알면, 함께 복용하면 위험하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약 대신 다른 약을 추천할 수 있고요.

또 예전에 어떤 증상으로 어떤 약을 써봤고 효과가 어땠

는지 이야기해주시면 더 알맞은 약을 제공할 수 있어요.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가보시라고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꼭 이야기해주 세요.

처방이 필요한 약도 있고, 처방이 안 되는 약도 있던데 무슨 차이인가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이 약이 잘 듣던데….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 "이 영양제는 처방받을 수 없어요?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약값이 싸질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의약품과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 다양한 질문을

받습 니다. 그런 질문 중 대부분이 의약품의 범위나 분류를 정확히 알 지 못하는 데서 나오죠.

약사법상 의약품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일반의 약품'과 '전문의약품'이에요. 일반의약품은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 의사의 처방이 없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해요. 그래서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죠.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위험이 높고 오·남용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포장 겉면에는 일반의약품인지 전문의약품인지표기돼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일까요? 아닙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 조절기능을 가진 '식품'이에요.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는 달리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통과해 '허가'를 받은 것이죠.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살 수 없습니다.

약을 먹을 때 좋은 조합, 나쁜 조합이 있나요?

약과 물은 가장 바람직한 조합이에요. 너무 평범하다고요? 간과하기 쉬운 점을 하나 짚어보자면바로 '물의 양'입니다. 약은 물 한 컵(240㎖)과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을 한 모금 정도의 적은 물로 삼키는경우가 많은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약 먹을 때 물

을 조금만 마시면 약 흡수가 떨어지고 약 성분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주스·커피·우유·녹차 같은 음료와함께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몽 주스를 고지혈증,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특정 약물과함께 복용하면 대사를 방해해 부작용 위험이 커져요. 커피의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하면 비슷한 효과를 가진 약물을 복용할때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약알칼리성인 우유는산성 환경인 위장관에서의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줍니다. 녹차는 타닌 성분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새해를 맞아 영양제를 선물하려는데, 인터넷에서 살 수 없는 영양제가 더 좋나요?

지인들이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몇몇 제 품을 이야기하면 "그 영양제 인터넷에서 안 팔던 데?" "드러그스토어에도 없더라? 어디서 사?"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홈쇼핑, 백화점 등 다양한

받을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음쇼핑, 백화점 등 다양한 곳에서 영양제를 판매하지만, 그런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다른 곳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영양제는 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여러 곳에서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영양제를 비교해보면품질이나 함량에서 차이가 나요. 허가 기준도 다르고요.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제조 공정이나 허가 과정이 건강기능식 품보다 복잡하고까다롭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일반의약품의 품질이 더 균일하고 보장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성분이

그런데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만 나오는 성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코엔자임 큐텐이나 루테인 같은 성분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기능성 원료'로 인증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만 나와요. 만약 건강기능식품 중 본인에게 필요한 성분과 복용할 의사가 있는 제품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및 'GMP(제조품 질관리기준)' 인증마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라면 건강기능식품보다 일반의약품을 추천합니다.

Ati100ès 2023 Summer 21



글 이현 중앙일보 기자 2011년 기자 생활을 시작. 중앙일보, JTBC에서 경제·산업 분야를 취재. 듣똑라 유튜브의 인기 시리즈 영상을 통해 MZ세대가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도움. 책 "금융 프렌즈가 우릴 기다려,를 펴냄.

전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추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올리는 것을 '빅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기 준금리는 한 번에 0.25%포인트 씩 움직이는데, 마음이 급해 성큼 두 계단을 밟아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빅 스텝'을 밟으며 올라간 미국 금리와 미국을 숨가쁘게 쫓아간 주요국들 의 기준금리는 올들어 대개 3~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한 번에 무려 6% 포인트나올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무려 97%까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100%에 가까워지면 은행 예적금 금리나 대출 금리는 대체 얼마나 높은 걸까, 100%대 특판 예금 같은 것도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1991년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죠. 아르헨티나 경제는특히 식량 수출 비중이 큰데, 최근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물가는 속수무책으로 뛰고 경제는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숫자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생활 속 실제 사례를 하나 옮겨봅니다. 2017년에는 1000 페소를 들고 과일가게에 가면 오렌지 47kg를 차에 실어 사왔는데, 지금은 같은 돈으로 오렌지 2kg를 한 손에 들고 걸어올 수 있을 정도로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가 치솟은 만큼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가치는 폭락한 셈이라,지난해 아르헨티나 국경지대에서 마트에 강도가 들었는데 직원이 아르헨티나 화폐를 주자"아르헨티나 페소는 안 가져간다"고 거부하는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웃나라 칠레에서 장을 보러 국경을 넘어 아르헨

티나 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이 칠레에서 사는 것보다 70% 정도 싸서 쇼핑하러 국경을 넘어오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바닥까지 내려간 덕분에 미국 달러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살 수있는 물건이 훨씬 많아진 셈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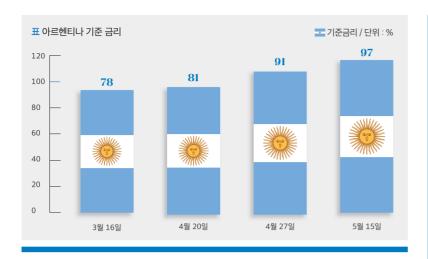
전세계 국가들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중'

아르헨티나만큼 극단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 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주요국 모두 인플레이션과 1년 넘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올렸죠. 우리나라의 경우 1년전 물가상승률이 6%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많이 안정되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10% 수준으로 높습니다. 물가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늦춰졌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준금리를 따라 대출 금리도 오르다 보니 당장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이 커진 분들이 많죠. 기업들도 높은 금리에 사업 자금 조달하기가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은 분위기에 지난해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뉴스들만 전하다 보니 저부터도 문득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위험한가? 아르헨티나처럼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도 아닌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인기 웹툰이자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는 주인공 진도준이 할아버지에게 상으로 돈 대신 땅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Ati100èe 2023 Summer 23



돈을 쓸 때쯤 이미 화폐가치는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라며 훗날 개발 호재까지 얻을 판교 땅을 중여 받습니다. 당장 1~2년 쯤은 큰 부담이아닌 것 같아 보여도 세월이 흘러 물가 상승률이 쌓이면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이 30~40년 뒤미래에서 온 진도준의 눈에는 더 선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를 통계를 뜯어보면 '구내식당식사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2011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보니 11년 사이 구내식당식사비가 43%나올랐습니다. 그러고보니 제가 다니는 회사 구내식당 식권 가격도 매년 몇백원씩 올릴 때는몰랐는데 그 몇 백 원씩이 쌓여 거의 두 배 가격이 됐습니다. 10%도 안 되는 물가상승률이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냥 두면 식권 가격처럼 쌓이고 쌓여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물가상승률이 항상 나쁜쪽으로만 작용하진 않아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 장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빚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00만 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아 내년까지 105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볼게요. 내년까지 물가가 5% 오른다

면 올해 100만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을 내년에는 105만원을 줘야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올해의 100만원과 내년의 105만원은 값어치가 같아지 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이자 5%를 붙여 갚 더라도 결국 빌린 만큼 갚는 것이나 마찬가지입 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두 배가 되어 10%라 면 올해 100만원과 내년의 110만원이 같은 가 치를 갖는데, 은행에 돌려줄 돈은 105만원 밖에 아되니까 대출을 받아 먼저 쓴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현실 경제가 이론대로 움직이지는 않죠.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둔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 집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도 오르면 좋은 데. 보통 임금을 물가 오르는 속도를 바로 따라 잡지 못합니다. 임금 협상은 1년 단위로 하는데 다.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안 오르면, 실제 가치로 따진 내 월급은 오히려 깎인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국민 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월급해 서 세금을 떼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물가가 자꾸 오르면 판매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메뉴판을 바꾸든 포장지를 바꾸든 가격을 조정하는 데 수고로움이들죠. 이것을 이른바 '메뉴판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화폐 발행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2008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는 800억%라는 말도 안되는 인플레이션이 벌어졌고, 종이 자체의 가치가 화폐 가치보다 높아져서 돈을 찍어낼 종이를 구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폐 가치는 물가상승률만큼 빠른 속도로떨어지니 빵 하나를 사려고 해도 고액권이 필요하고, 정부는 지폐 만들 종이를 구할 시간과

빅 스텝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올 리는 것. 돈이 부족하고 악순환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내려가는 것(디플레이션)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야 사람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던 물건이 싸져서 기분 좋게 소비하고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지만,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룹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싸진다고 생각하니까요. 소비자 개인에게는 현명한 선택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판매가 안되니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력 정리를 할테고,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더 안 하게 됩니다.

한은의 목표는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래서 한국은행을 비롯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뉴스에 가끔 '물가상승률 목표치' 혹은 '타겟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은 연간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적당한 목표라고 정해 뒀습니다. 그러니 물가상승률이 2%대로

.. 인플레이션 세금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안 오르면, 실제 가치로 따진 내 월급은 오히려 깎인 셈. 이런 식으로 인 플레이션이 국민들의 소 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월급해서 세금을 떼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는 의미.

..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 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내려갔다는 기사를 보게 된다면 '한국은행이 조 만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5%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지수 통계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나라마다 소비자물가지 수를 조사할 때 포함하는 상품이 다릅니다. 아 마 북어채, 김치냉장고, 자장면, 짬뽕 같은 것들 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바구니에만 담겨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에스카르고(달팽 이 요리)가, 독일에서는 브라트부르스트(독일 식 수제 소시지) 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구 성하는 품목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우리의 생 활습관이나 문화가 바뀌면 물가지수 품목이 바 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여년 전만 해도 '초 면'이었던 파프리카, 아보카도, 망고 등이 지금 은 소비자물가를 대표하는 바구니에 담겨 있습 니다. 고수 향 때문에 도전하기 쉽지 않았던 외 식 메뉴 쌀국수도 2020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니 기준금 리니 어려운 경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은 그냥 '먹고 사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



Ati100èe 2023 Summer 25



글 한상헌 매일경제신문 기자 2019년 매일경제 금융부, 2021년 매일경제 사회부에서 근무. 2023년 제2회 대한민국 언론대상 특별상, 2023년 제2회 대한민국 언론대상 특별상, 2022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1월 이달의 좋은 기사 수상.

간편결제 시장 지각 변동 예고한 '애플페이'

지난 4월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출시되면서 간편결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페이는 주요 백화점, 마트, 영화관,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없이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 소비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내에선 현재까진현대카드 이용자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대카드를 발급하는 신규고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애플페이는 실물 카드나 현금 없이도 매장·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앱)에서 쉽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아이폰의 '지갑' 앱에 추가하면 사용 준비가 완료된 것이죠. 휴대전화 잠금화면 상태에서 측면 버튼을 두 번 빠르게 누르면 별도로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애플페이가 켜집니다.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완료' 창이 등장하고 결제가 마무리됩니다. 애플의 생체인식 기술인 '터치 ID'와 '페이스 ID'를이용해 터치 한 번 또는 눈길 한 번이면 결제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통해서도 결제가 지원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애플페이는 애플페이 로고 또는 근거리무선통 신(NFC) 결제 마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NFC 기술을 지원하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아이폰이나 아이패 드, 맥의 사파리에서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 기기 이용자들은 매우 편리하겠죠. 포인 트·마일리지 적립 등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 상이나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고요. 결제 시 기기별 번호와 고유 거래 코드를 사용하기 때 문에 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 해주는 것도 이점입니다. 피부 접촉을 통한 세 균 감염이나 확산에 대한 걱정 없이 더 위생적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입니다.

'애플페이' 사용처 제약적임에도 반응은 뜨거워

국내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곳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애플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주요 편의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의 프랜차이즈,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마트, 일부 호텔, 백화점, 영화관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처로는 백화점인터넷 쇼핑몰, 배달앱,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신용카드도 현재 국내 카드사 중 현대카드만 해당됩니다.

애플은 과거에도 애플페이의 한국시장 진출을 타진해왔지만, 높은 수수료 부담과 NFC 단말 기 보급 문제 등 현실적 장벽에 막혀 도입이 지 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애플페이가 현대 카드를 통해 정식으로 상륙하면서 시장의 뜨거 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애플페이 출시 이후 한 달간 신규 발급된 카드 는 약 35만5000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 8000장) 대비 156% 증가했으며, 이 중 신용카 드가 23만7000장. 체크카드가 11만8000장 발 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카드 신규회원 중 애플 기기 이용자의 91%가 애플페이를 등록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신규 회원 중 MZ 세대의 비중이 79%로 가장 많았는데. 구체 적으로는 20대가 5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8%), 40대(1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카드 고객들이 4월말까지 애플페이를 이용해 결제한 건수는 약 930만건이었으며, 애플페이를 1회 이상 이용한 고객의 비중은 71%였습니다. 방문 횟수가 잦은 주요 편의점 중에서는 'GS25'(25%)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코

∆ti100€ 2023 Summer 27



스트코'에서 가장 많은 금액(22%)이 결제됐습니다. 온라인 가맹점 중에서는 '배달의 민족'이가장 많은 사용 빈도수를 자랑했습니다. 전체결제 금액의 9%는 해외에서 결제됐습니다. 일반 카드 결제 금액의 해외 결제 비중이 2% 수준인 것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우버', '스타벅스', '에어비앤비'에서의 결제 비중이 높았던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간편결제 선점자 '삼성페이'와 대결 결과는?

우리나라 간편결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도 애플페이와 전면전 양상이 전개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방식을 이용해 기존 플라스틱 카드로결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하고 안전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데요. 온·오프라인 결제와 어디서나 실물카드처럼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삼성페이의 MST 방식은 삼성페이는 NFC 결제 방식도 지원하며, 마그네틱 카드를 긁어서 결 제하는 기존 단말기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 우 리나라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아이폰 사용자들이 실물 카드나 현금 없이도 매 장·웹사이트·애플리케이 션(앱)에서 쉽고 안전하 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

NFC

근거리무선통신. 비접촉 식 무선통신 기술로 스 마트폰 등에 내장되어 교통카드, 신용카드, 멤 버십카드, 신분증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삼성페이는 결제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편의성을 강화해왔습니다. 결제화면에서 바로 멤버십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내역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일별 지출부터 등록된 결제 수단별 지출 금액확인이 편리하게 가능한 것은 물론 교통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도 있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준비에도 페이앱에 마련된 전담 창구를 통해빠르게 화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페이의 등장에…예상치 못한 시장 변형

애플페이의 등장에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가 '동맹'을 맺은 보기드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어버파이낸셜이 지난 4월부터 네이버페이 앱에서 마그네틱보안 기반 삼성페이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건데요.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전국 약 300만개 오프라인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로 현장 결제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널리 사용됐던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대표적인 간편결제 서비스들 은 앱에서 앱으로 결제 정보를 전달하는 앱투 앱 방식을 사용하거나 삼성페이와 제휴해 앱 안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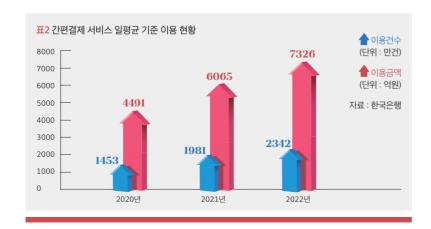
점점 확대되는 간편 결제 시장, 최종 승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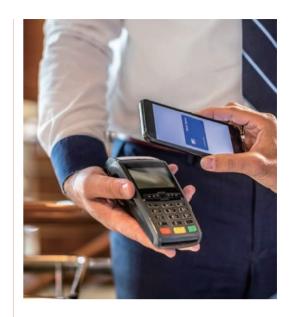
우리나라 결제 시장에서 간편결제 이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실적은 2342만3000건, 732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8.2%, 20.8% 증가한 수치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을 제공업자별로 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먼츠, NHN페이코 등 37개 사가 속한 전자금융업자 비중이 47.9%로 가장 컸습니

간편결제 서비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전자 결제 서비스로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 신용 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서비스. 다. 이외에 삼성페이와 LG페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는 25.3%, 신한·KB국민·삼성·현대 등 15개사 금융회사는 26.8%로 조사됐습니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방식 중 카드·계좌에 연동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이용한 비중은 33.8%로 집계됐고요. 이는 2020년(27.7%), 2021년(29.4%)보다 높아진 것으로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으로 카드업계와 현재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NHN페이코 등이 양분하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지 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카 드가 일정 기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 권 획득을 전제로 애플 측과 도입 협상을 벌였 지만, 호환 단말기 보조금 지급 이슈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국내 카드사들도 애플페이를 도입하기까지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애플페 이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질 경우 카드사들도 결제 수수료 등을 이유로 도입을 꺼려왔지만. 하는 수 없이 애플과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편결제 이용 수수료도 뜨거운 도마 위에 오 를 예정이죠. 애플이 카드사에 애플페이 이용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





서 가장 큰 경쟁자 중 하나인 삼성페이도 수수 료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 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카드사에 삼성페이와 관련해 맺었던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카드 업체들과 삼성페이에 대해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 등 내용을 담은 계약을 했고, 이 계약은 양측 이견이 없는 한 자동 연장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카드사가 맺고 있었던 기존 계약은 8월께 만료되고, 새로운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방침을 두고 삼성페이 수수료 유료화로 가는 수순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가 카드사로부터 결제액의 최대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삼성페이도 수수료를 받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카드업계에서는 삼성페이로 인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카드 혜택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ti100€ 2023 Summer 29

AII100NEWS







NH농협은행 WM사업부, 고객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집중 관리' 나서

NH농협은행 WM사업부가 고객에게 더 만족스러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원 교육에 나섰다. NH농협은행 WM사업부는 지난 4월 직원 교육 과정인 'WM살롱'을 개최했다. 'WM살롱'은 영업점 WM직원들의 금 융·경제지식을 함양해 종합자산관리 능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직원 교육 과정이다.

직접 참석해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격려한 이민경 WM 사업부장은 "오늘 수업을 통해 고객들의 자산관리 전문가로 거듭나시라"며 참석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수업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지난번에 개최됐을 때도 참석했는데 배운 지식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주변 동료 직원들에게도 참석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7월에는 그간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9월에는 자산관리경연대회를 열어 교육을 계속해갈 예정이다.

NH농협은행 반려견과 함께 하는 펫 세미나 개최

NH농협은행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경기도 고양 시 소재 애견카페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 견(犬) 고하개, 나의 자산도 견고하개' 펫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자산관리 세미나에서는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전문위원들이 강연과 이벤트, 1:1 맞춤형 자산관리 상담 등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했고 설채현 행동학 수의사가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 새로운 가족의 의미' 특강을 진행하는 등다양한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는 WM전문위원 9명, 세무전문 위원 5명, 부동산전문위원 2명, 은퇴설계전문위원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자산관리 전문 조직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미경 NH농협은행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부행장은 "자산관리가 더욱 친숙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고객의 가족인 반려견이 함께할 수 있는 펫(pet)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대중적인 자산관리를 선도하기 위해 대면, 비대면 채널에서의 자산관리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객에게 최상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WM사업 강화를 위한 WM로드쇼 개최

NH농협은행은 상반기 온(溫)택트 'WM로드쇼'를 개최하고 모든 직원이 참석 가능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로 개최 12년을 맞이하는 'WM로드쇼'는 자산관리, 펀드, 방카, 퇴직연금, 신탁 등 WM사업을 총망라하는 자산관리 세 미나로 시장 현황부터 마케팅 기법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 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전국 영업점의 사무소장과 WM 담당 직원들에게 "평생 고객을 확보하는 WM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문성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고객관리"를 요청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2020년 조직개편으로 출범한 NH All100자문센터를 통해 본부 중심의 전국적 자산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금융·세무·부동산·은퇴 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ti100èe 2023 Summer 31

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재산 분할, 미리미리 준비해야 분란 막을 수 있어

재산 분할, 선뜻 꺼내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미리 해둬야 추후에 있을 자녀 간 소송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우리 법에서는 생전에도 다양한 형태를 통해 유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으므로, 미리미리 살펴두는 것을 권한다.

A씨는 자녀로 아들 甲, 딸 乙을 두었으며, 배우자는 먼저 사망했다. B씨는 甲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는 생각에 부동산 등을 비롯한 재산의 80%를 甲에게 준 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지만 자녀들 사이의 분쟁을 막 기 위해 乙에게도 20%의 재산을 물려줬다.

재산 두고 자녀 간 소송 길게는 10년까지 이어져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런 준비 없이 재산을 남기고 가고 남긴 재산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다툼이 일어난다.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로 짧게는 3년 정도, 길게는 10년 이상까지도 이어진다. 따라서 유산에 대해 미리 살펴 둘 필요가 있다.

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꼭 분배되어야 할 몫, 유류분이다.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은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정하고 있고,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한다. 만일 일부 상속인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을 물려받게 된다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받아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그 재산의 일부를 받아올 수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乙에게도 20%의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乙의 유류분 비율은 4분의 1(=법정상속분 2분의 1 × 유류분 비율 2분의 1), 25%이므로, 乙은 甲을 상대로 甲이 A씨로부터 받은 재산들 중 乙의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하는 지분 등을 반화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해야 현명

내 생각에는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나름대로 나눠뒀는데 결국 자식들 사이에서 싸움이 날 수 있다. 상속인들각자의 유류분을 계산하여 적어도 그만큼의 재산은 나눠주고, 나머지 다른 재산들 중 각자에게 나눠줄 재산들을 숙고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생전증여, 사인증여, 유증,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글 강민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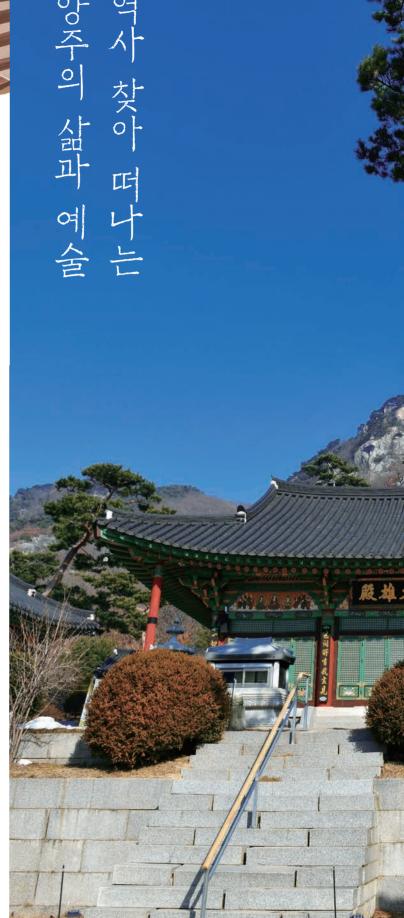




과거의 숨별 따라 현재를 보다

회암사지를 앞에 두고 잠깐 서 있었다. 천보산 기슭 아래 들판처럼 광활한 면적 위로 겨울이 지나가는 중이다. 조선 시대 최대 규모 사찰이던 회암사가 있던 곳, 회암사 절터에는 군데군데 아직 잔설이 희끗희끗하다. 그늘이 드리운 땅에는 녹지 않은 눈이 제법 하얗다. 여전히 쨍한 찬 기운을 제대로 맛본다. 머릿속이 시원하게 헹구어지는 느낌이다.

글 이현숙 브라보마이라이프 여행작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딛고 있었던가. 그 옛날 건물만 262칸이었다던 조선시대 사찰 회암사가 있었던 회 암사지에는 찬 공기를 실은 바람이 가끔씩 지나간다.

당시 승려만도 3000여 명이 이곳에서 수행했다 하니, 지금 이어도 엄청난데 그 시절 대찰의 면모를 가히 짐작해볼 만 하다.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 14-1번지 일원, 천보산이 둘러 싼 '회암사지' 절터는 역사 속에서 잊혔던 곳이다. 그러다 1997년 이후 지속적인 발굴 조사와 작업 과정에서 사찰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위상을 알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절터의 제1권역부터 제2, 제3… 권역의 상세한 안내판이 여기저기 친절하다. 현재 기단과 주춧돌만 남아 있지만 천 보산 아래쪽 계곡을 메워 계단식 석축을 쌓아 건물 구역을 조성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구역별 건물지도 발견되었다. 회암사지를 둘러보다 보면 거대한 석축과 반듯반듯하게 배치되었을 건축 형상 에서 품격이 느껴진다.

회암사지 중심에서 벗어나 산기슭 바로 아래에 위치한 회암사지 부도탑,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탑으로 추정하는데 사리탑(舍利塔)은 대체로 온전하게 남아 있어 귀중한석조 유물로 전해진다. 특히 조선시대 부도 양식으로 건립된 사리탑 중에서 정교함과 화려한 조각 문양으로 수작이라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조형물이다.

사리탑 앞에서 너른 회암사지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서니 멀리 도심의 높은 건물과 아파트가 눈에 들어온다. 거리를 두고 과거와 현재가 마주하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최대의 왕실 사찰이 었던 회암사지는 현재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 어 있다고 한다.

1만여 평의 회암사지를 한 바퀴만 돌아도 당시의 거대한 규모와 불교 문화의 흔적이 역력하다. 회암사지를 내려오는 길목에 세워진, 회암사를 찾는 태조의 행차 장면 모형에서 이곳의 위상을 또 한 번 느낀다.

문화재 간직한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회암사지에서 발굴·출토된 유물들을 전시 중인 박물관이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유물전시 및 교육을 비롯해 쉼터 역할도 하는 등 친화적인 분위기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듯한 지역민들이 방문자센터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다. 대규모 절터 옆의 박물관이 주민들과 친근하게 이어진 모습이 보기 좋다.

지공·나옹·무학의 천년 고찰 회암사(檜岩寺)

회암사지에서 고개를 들어 보면 멀리 회암사 일주문이 보인다. 자동차로 5분쯤 달려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천보산회암사라는 편액이 걸린 일주문 옆으로 지공선사·나옹선사·무학대사 삼대 화상 수행성지라는 팻말이 조그맣게 세워져 있다.

현재의 회암사는 옛 회암사의 삼대 화상 묘탑(廟塔)을 지키기 위한 작은 암자 터에 세워진 공간이라는 설명도 있다. 삼대 화상의 묘탑과 가람을 수호하고 수행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회암사다.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장대했던 대규모 사찰이 폐사되고 초석만 남아 있던 곳이었다. 200년 동안 엄청나게 번성했 던 회암사는 그 시절 전국을 다니다가 만나는 승려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대부분 회암사에서 왔다고 할 만큼 승려 수가 많았다고 전한다. 사찰이 넓진 않아도 천년의 문화유산이 숨 쉬는 듯 따뜻하고 고색창연하다. 대웅전 마 당 옆으로 난 산길을 몇 걸음 옮기면 지공선사의 부도 및 석등, 나옹과 무학의 사리탑이 나란히 앉혀져 있는 언덕이 있다. 비탈진 사찰을 천천히 오르면서 그분들의 수행 향기 를 느껴볼 만하다.

현재 회암사에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맑은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은 진정 힐링일 것이다. 역사·문화 도시 양주에서는 또한 이 지역 출신 예술가들을 위한 기획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이 도로를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기획 전시도 진행하는 중이다.



- 01. 양주회암사지의 시작
- 02. 이제는 폐역이 되어버린, 일영역 일대
- 03. 양주회암사지박물관 진입
- 04.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의 기획전시

"삼대 화상의 묘탑과 가람을 수호하고 수행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회암사"





술관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1층의 기획 전시를 보고 2층 으로 올라가면 민복진 조각가의 현대 조각이 가득 차 있 다. 역시 가족과 어머니와 인류에 대한 사랑이 주제다.

돌아오는 길에 장흥면 방향으로 위치한 간이역 일영역을 거쳐서 오는 건 어떨지. 마침 노을이 내리고 있다면 금상 첨화다. 폐역이 된 일영역은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촬영 지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둔 아련한 레트로 감성의 폐역을 거쳐 오는 것도 더할 나위 없는 마무리다. 당일 코스로 역사와 문화를 두루 돌아볼 수 있는 경기도 양주의 하루는 풍성하다.

꽃잎이 날리는 봄·가을의 나리공원이나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출렁다리,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 수목원이나 아트파크의 즐거움을 누릴 계절도 있다. 봄을 앞둔 시절에 역사속으로 들어가 그림과 조각 작품의 예술에 깊이 빠져보는 것, 참 감사할 따름이다. ☎

화가 장욱진과 조각가 민복진의 예술 속으로

장욱진 화가의 그림 내용은 우선 가족이다. 그리고 나무, 새, 아이 등 일상의 소재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그 속에는 자연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본질이 담겼다. 한국의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장욱진의 미술관은 조각상이 전시된 공원을 지나서 들어간다.

전시장을 돌다 보면 그림마다 가족이 등장한다. "나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가족을 통해 서로 이해된다는 사실이 다른 이들과 다를 뿐"이라고 했듯이. 이렇듯 전시장의 그림마다 화가의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영상을 통해 그의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다.

"나는 심플하다"는 화가의 말처럼 자연 속에서 동화적이고 이상적인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그림들이다. 특히 미술관 건물은 화가의 그림을 모티브로 설계된 새하얗고 독특한 구성의 건축으로 눈길을 끈다. 2014년 김수근건축상을 받 기도 했다.

건너편의 민복진미술관은 입장 티켓 한 장으로 장욱진미





Ati100≥ 2023 Summer 37

행복이야기 - 인터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버틸 수 있는 의지

배우 **고창석**

글 이은주 서울신문 기자

사진 아트원컴퍼니 쇼 뮤지컬〈드림하이〉, 인사이드엔터테인먼트 뮤지컬〈그날들〉,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영화〈드림〉스틸컷, 배급사 CJ ENM 영화〈카운트〉스틸컷 제공 자타 공연 '명품 조연' 배우 고창석(52)은 누구보다 치열한 2023년을 보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드림', '카운트' 등 영화 2편에 출연했고 흥행 돌풍을 일으킨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한국어 더빙판에 이용팔 역으로 목소리 출연하기도 했다. 여름에는 뮤지컬 '드림하이'에 이어 '그날들' 10주년 기념공연으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고창석



"이왕이면 밝고 긍정적인 역할 하고파"

뮤지컬 연습과 영화 촬영을 병행하느라 피곤할 법도 하지만 그에게서는 연기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는 지난 4월 노숙자들이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영화 '드림'에서 빚보증을 잘못 서이혼당했지만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해 딸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아버지 효봉 역을 맡아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그가 교장 역으로 출연했던 영화 '카운트' 역시 복싱을 소재로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로 두 작품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할 때 시나리오나 함께 출연하는 동료도 중요 하지만 같은 값이면 밝고 재미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요. 현실이 팍팍하니까 관객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작품에 더 끌 리는 것 같아요."

부산 출신으로 부산외대 일본어학과에 입학한 그는 대학생 때부터 탈춤 동아리와 마당극 활동을 했고 스물 다섯부터 극단 생활을 시작했다. 그저 연기가 즐겁고 재미있었던 그는 서른살이 되면 연기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극단에서 지금의 아내인 배우 이정은을 만났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울예전 연극과에 합격했고 결혼해서 대학 생활을 함께 했다. 하지만 연기만으로는 생계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시절도 있었다.

"저를 보고 사람 좋아 보인다고들 하시는데, 배우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마흔살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공연 제작사를 3년 정도 운영했는데 결국 빚만 떠 안고 그만두게 됐죠. 나중에 영화 출연료로 그때 주지 못한 막내 배우들 월급을 다 넣어 주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전전하다 충무로 '명품조연' 등극

30대 후반까지 연극과 뮤지컬에 출연했던 그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영화계에 본격 진출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었던 것일까. 영화 '친절한 금자씨'(2005). '바르게 살자'(2007), '영화는 영화다' (2008) 등에 출연하면서 그만의 개성과 연기 내공이 충무로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베트남 보스 역으로 열연했던 '의형제'(2010)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린 그는 2011년 블록버스터 영화 '고지전'과 '퀵'에 연이어 캐스팅되며 '명품 조연' 반열에 올랐다.

특히 그는 장훈, 이병헌 등 당대 촉망받는 젊은 스타 감독들과 여러

∆ti100≥ 2023 Summer 39



나이 오십이 돼도 불안한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차례 작품을 함께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어떤 역할을 맡든지 마치 자신의 옷을 입은 것처럼 소화하는 비결은 바로 감독과의 유연한 소통에 있다.

"겁나고 불안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다 그렇게 산다. 괜찮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는 고창석. 그는 "스무살에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서른 살, 마 흔 살, 오십이 되면 더 겁이 나기 때문에 불안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가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의 인생 2막은 계속 즐겁게 연기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배우로서 '좋은 재료'로 남고 싶어요. 제가 좋은 연기를 할수 있는 신선한 재료인지 아닌지는 동료나 감독들이 먼저 알아요. 관객들에게 항상 기대감을 주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는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감독이 원하는 장면은 일단 시도해 본다"면서 "그러다보니 감독들과 관계가 틀어질 일도 없다"고말했다.

마동석, 유해진과 돈독… 주연 욕심 없냐고요?

유쾌하고 소탈한 성격 덕분에 나이를 막론하고 주변 동료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마동석, 유해진 등과는 계모임을 할 정도로 돈독







한 사이다. 함께 '명품 조연'으로 이름을 날리 던 이들은 어느덧 주연 배우에 이름을 올렸 다. 그도 주연을 맡고 싶은 욕심은 없을까.

"두 친구는 물론 최근 '카운트'의 (진)선규도 주인공이 되니까 '왜 나만 계속 그 자리에 있을까?'하고 심리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충분히 잘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요.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은 단순히 대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창석은 "영화는 내 자식과도 같다"면서 "주 인공은 말 그대로 감독과 함께 촬영, 연기 뿐 만 아니라 그 작품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영화 전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때로는 불안하고 고통스럽지만, 배우만큼 자유롭고 재미있는 직업도 없다면서 환하 게 웃는 고창석. 영화, 드라마, 뮤지컬까지 두루 섭렵한 그는 각 장르마다 매력이 있다 고 말했다.

"드라마는 대세이다 보니 잘 되면 파급력도 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영화는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하는 작업이 좋고요. 공연은 하나의 대사를 천 번 넘게 하면 지루하지만 훈련이 되고 배우로서 뭔가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관객들에게 감정이 가장 빨리 전달되는 소극장 연기가 제일부담되면서도 재미있어요."

배테랑 배우인 그는 나이 오십이 넘어도 1년에 한 번씩 보이스 코치를 받으면서 자신의 발성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나이가 들수록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故) 김광석의 명곡들로 이루어진 주크박스 뮤지컬 '그날



들'의 10주년 기념 공연에 참여하는 그의 각오도 새롭다.

"학창 시절에 공연할 때 대기실에서 김광석 선배님이 구석에서 기타를 튜닝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선배님의 노래 '서른 즈음에'를 부를 때마다 느낌이 새롭죠."

온 가족이 서울예전 동문… 학창 시절 은사도 같아

2001년생인 딸도 서울예전 연극과에 입학하면서 이제는 온 가족이 동문이 됐다. 학창 시절 은사도 같으니 독특한 인연이다.

"딸이 처음에는 연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워낙 어린 시절부터 본 것이 연습실이라다보니 배우의 길을 함께 걷게 됐네요. 딸이 입학해서 연기 아이디어를 물어볼 때 가족 간의 묘한 공감대가 생겨요."

평소 건강관리로 햇빛을 보고 많이 걷는 편이라는 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소 대중교통을 애용한다. 재테크 역시 새지 않는 돈을 만 들고 과하지 않는 소비를 하는 편이다.

"배우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산적인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지는 않더라도 쓸데없는 과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에요. 상황이 아주 어렵지 않다면 저는 수입이 좀 적더라도 계속 연기만 하고 싶어요." ☞

Ati100er 2023 Summer 41

달콤한 과즙이 뚝뚝 복숭아



복숭아 모히토

만들기 1 백도는 껍질을 벗겨 잘게 썰고 천도복숭아는 반달 모양으로 썬다. 2 컵에 잘게 썬 백도와 애 플민트, 설탕을 담고 수저로 으깨준다. 3 ②에 얼음을 넣고, 반달로 썬 천도복숭아와 탄산수를 부어주면 완성. 기호에 따라 보드카를 넣어도 좋다.

여름 과일의 여왕으로 꼽히는 복숭아. 둥그런 모양에 화사한 분홍빛을 자랑하는 복숭아는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한다. 곱고 예쁜 자태에 눈으로 한 번, 달콤한 과즙에 입으로 또 한 번 즐길 수 있는 복숭아와 함께 더위를 이겨보자.

자료제공 전원생활





애연가·애주가라면 복숭아를

여름이 제철인 만큼 복숭아는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다. 복숭아에 풍부한 비타 민과 미네랄은 피로 해소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 복숭아는 수분이 많 은 데다 과육의 성질도 차지 않아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혈관 내 뭉친 어혈을 푸는 데도 효과적이다.

애연가나 애주가라면 이번 여름에 복숭아 섭취를 늘려보자. 복숭아의 새콤한 맛을 내는 구연산·사과산·주석산 등의 성분은 흡연으로 인해 몸속에 쌓이는 니코 틴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킨다. 또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고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는 등의 효과도 있다. 복숭아 과육에 많이 들어 있는 아스파라긴산은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한다. 과음한 다음 날, 몸이 힘들다면 복숭아로 숙취를 없애보자.❖



복숭아 그릭요거트



준비하기(2개) 잘 익은 황도 2개, 그릭요거트 8~10큰술, 그래놀라 ½컵, 레몬즙과 꿀 약간

만들기 1 흐르는 물에 복숭아를 깨끗이 씻고 꼭지 부분을 평평하게 잘라낸다. 2 칼로 씨 부분을 파낸다. 숟가락을 이용해 약 2㎝ 두께의 과육만 남기고 복숭아 안쪽을 마저 판다. 3 복숭아 껍질을 손으로 벗겨낸다.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면 열십자로 칼집을 내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쳤다가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긴다. 칼을 써도 된다. 4 갈변하지 않도록 복숭아 겉에 레몬즙을 뿌린 다음, 안에 그릭요거트를 채워 넣는다. 5 ④를 랩으로 싸서 30분간 냉동실에 넣어둔다. 6 접시에 그래놀라를 담고, 그 위에 그릭요거트를 채운 입구가 아래로 향하도록 복숭아를 올린다. 입맛에 맞게 꿀을 뿌려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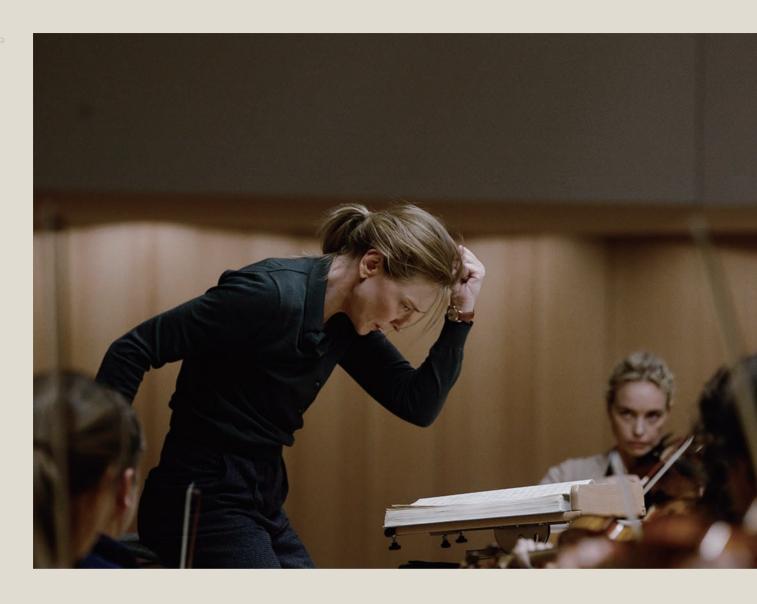


복숭아 치킨그릴드타코

준비하기(2개) 토르티야 2장, 닭 가슴살 1덩이(120~150g), 황도·백도 각 ½개씩, 라임 또는 레몬 ½개, 적채 40g, 청양고추 1개, 양상추 2장, 루콜라 10g, 카놀라유 1작은술, 닭 가슴살 양념(청양고추 1개, 고 춧가루·고추장·매실청·청주 1큰술씩, 다진마늘 1작은술, 간장 1작은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허니 머스터드 스프레드(마요네즈 2큰술, 머스터드·꿀 1큰술씩, 씨겨자 1작은술)

만들기 1 닭 가슴살 양념 재료 중 청양고추는 반으로 잘라 씨를 빼고 곱게 다진다. 다진고추를 나머지 재료와 섞어 소스를 만든다. 2 닭 가슴살은 1㎝ 두께로 썰어 ①에 버무려둔다. 3 복숭아는 껍질째 깨끗 이씻어 채 썰거나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고 그릴 팬에 살짝 굽는다. 적채는 채 썰고 청양고추는 가늘게 송송 썬다. 양상추와 루콜라는 한입 크기로 뜯는다. 4 달군 팬에 카놀라유를 두르고 ②를 볶는다. 5 마른 팬에 토르티야를 앞뒤로 뒤집어가며 노릇하게 굽는다. 6 허니머스터드 스프레드 재료를 한데 담아고루 섞는다. 7 구운 토르티야 위에 ⑥을 바르고 복숭아·닭고기·적채·청양고추·양상추·루콜라를 올리고 라임이나 레몬을 짜 즙을 뿌린 뒤 돌돌 만다.

Ati 100 2023 Summer 43



음악과 소음

강렬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영화 〈타르〉 "인종차별적으로 불쾌한 영화"라는 평가가 있다. 세계 최고 여성 지휘자 마린 알솝은 이 영화를 "반여성주의적인 영화"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주연을 맡은 케이트 블란쳇이 제79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와 제80회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 이미 여러 영화제에서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토드 필드 감독 영화 <타르>는 관객 눈앞에 미투와 여성 권력자라는 현실 주제와 뜻 모를 비현실적 장면들을 들이대며 논쟁과 해석을 도발하는 야심 가득한 영화다.

글 남은주 번역가, 자유기고가 사진 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그의 숫자는 5

영화는 30분이 넘는 두 가지 긴 대화로 시작한다. 하나는 리디아 타르라는 베를린 필하모닉 여자 지휘자의 화려한 경력과 야심을 드러내는 공개 인터뷰고, 다른 하나는 지금 예술이 처한 논쟁적 지점을 보여주는 타르의 줄리어드 음대 특강 장면이다. 인터뷰에서는 여성 지휘자라는 혁신적인 면이 부각되지만, 줄리어드 특강에서는 완고하고 보수적인 세대의 일원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인터뷰에서 타르는 구스타프 말러 전 교향곡 실황 녹음에 도전해 스승 레너드 번스타인을 넘어서는 업적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다. 번스타인이 14분에 걸쳐 연주했던 대목을 타르는 7분 동안 연주한다. 마지막 5번 교향곡만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 있다.

왜 말리 5번일까? 두 가지 의미일 것으로 짐작된다. 하나는 타르가 말리의 삶을 좇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말리 또한 5번 교향곡을 작곡할 즈음 음악가로서 정점에 있었고 알마와 결혼하면서 인생에서도 행복을 누렸다. 그러나 그 뒤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강박적 성향과육체적 질병이 겹쳐 급속히 쇠약해졌다.

말러의 삶이 불길한 예시라는 점 말고도 타르가 '5'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타르는 '빅 파이브' 지휘자로 경력을 쌓은 뒤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지명됐다. 인터뷰에서 타르는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이야기한다. 모든 것을 잃은 타르는 레너드 번스타인이 차이콥스키 5번 교향곡을 지휘하는 장면을 지켜본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타르의 죄책감과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플래카드처럼 '5'는 다시 등장한다.

보이지 않는 얼굴

타르는 말러 교향곡을 완성하고 자기 작품을 쓰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어떤 소음 때문에 방해받는다. 한밤 중 이상한 소리, 이웃의 방문, 누군가의 비명 같은 것 이 있었다.

153분 동안 계속되는 긴장된 드라마에서 이 음악영화를 끌고 가는 힘은 음악보다도 소음이다. 얼굴 없는 누군가가 내는 그 소리는 갈수록 커진다.

줄리어드 특강에서 리디아는 바흐의 개인적 약점 때문에 바흐의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학생을 몰아세우면서예술적 재능을 성 정체성이나 인종, 국가 따위로 치환하지 말라고, 소셜미디어가 네 영혼을 점령하게 두지말라고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자신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처럼.

Aii100èe 2023 Summer 45



리디아는 여성 레즈 비언이지만 여성 정체성에는 관심

이 없다.

지휘자를 맡으려고 파트너인 베를린 필하모닉의 콘서트마스터 샤론(니나 호스)과의관계를 이용했으며첼리스트 올가(소피 카우어)와 사귀어 보려고 또

다른 단원을 이용한다.

예전에 사귀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크리스타와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치 않고 헌신적인 비서 프란체스카(노에미 메를랑)를 내치지만 죄책감은 없다. "권력에는 성별이 없다"는 케이트 블란쳇이 인터뷰에서 한 말 그대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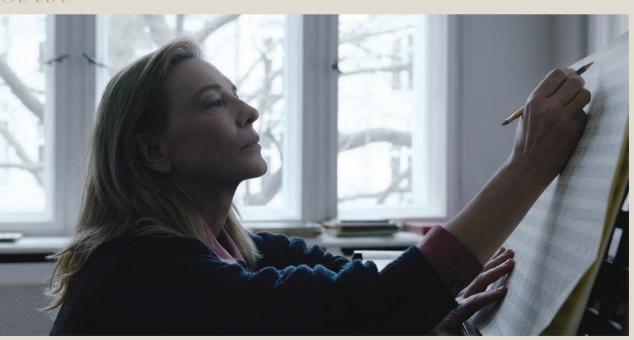
타르의 집은 어디인가

그런데 이 권력자는 밤만 되면 집안 어딘가에서 낯선 소리를 듣고 올가를 따라간 집에서 짐승에게 쫓기고 옆집에서 노파의 시체를 발견한다. 꿈과 실제가 구별 되지 않는 에피소드들에서 드러나는 것은 리디아가 커 다란 불안과 강박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신분석에선 숫자가 운명을 예고하는 힘은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불길한 징조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빛나는 인생의 무대 뒤에서 타르를 지켜보며 이상한 소리를 내던 소름 끼치는 얼굴은 그 누구도 아닌 리디아 자신이다. 또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집은 내면의 상징이다. 샤론과 함께 사는 아파트, 어두운 올가의 집, 노파가 죽은 옆집은 무언가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는 리디아의 내면 공간들이다.

크리스타의 폭로로 모든 것을 잃게 된 타르는 초라한 어린 시절의 집을 찾는다. 베를린 필, 뉴욕의 호텔, 도 시 변두리, 필리핀으로 밀려날수록 소음은 줄어들고 침묵이 커진다. 권력이란 소음을 견딜 수 있는 자의 것 이다.☎

TAR





NH AII100자문센터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 100세까지 『NH All100자문센터』와 함께 하세요!

금융 · 세무 · 부동산 · 은퇴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NH All100자문센터」는 고객님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는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산관리(WM)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자산현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으세요!



New **Happiness**

Att100 ##

은퇴설계 은퇴설계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은퇴목표를 설정, 자산현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받으세요!

